

한국YWCA 후원콘서트 '동행'



You Are Not Alone

일시 2018년 10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서울 정동)



예매문의 02)774-9702~7
www.ywca.or.kr
티켓 안내 프리미엄석 100,000원
 R석 50,000원 | A석 30,000원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1.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1.253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재부 063.466.0997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8년 9월호
 September
 Vol.553

특집 'YWCA 지역여성운동'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
 청주YWCA, 여성주의로 지역운동을 하다

기획 '청년과 리더십'

청춘을 숨쉬게 하다 '청년CPR캠프'
 잠시 멈추니 안 보이던 '같이 보였다'

초점 '아동·청소년보호 국제세미나'

영국, 한번의 '그루밍'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왜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책 '그녀 이름은'



연제 : 2018.8.23(목)-8.25(토) 2박 3일 동안
 일시 : 오후 2시까지 집결(시간엄수)
 어디 : 대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대강당으로

정오기도로 시작한 평화·통일운동



1994년 중국 연변에서 열린 한민족여성대회



1997년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전달식



2017년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편(사진=여성신문)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YWCA 평화·통일운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설립 초기 평화를 희구하는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된 YWCA 평화운동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운동으로 확대된다. 분단 이전 북한 선천, 안주, 원산, 평양, 함흥에 조직이 있던 YWCA로서는 더욱 절실했다.

1972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합의인 7.4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 기대가 한껏 고조됐을 때 YWCA는 전국적으로 통일강연을 열었다. 본격적인 평화·통일운동은 1980년대부터 재개된다. 1980년 3월 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한국교회 통일선언 채택을 계기로 정오기도운동, 북한YWCA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의 싹을 틔운다. 1983년 평화세미나를 개최했고, 1985년 북한바로알기모임과 전쟁놀이 장난감 반대운동을 펼쳤다.

1986년 세계YWCA가 내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을 계기로 평화·통일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그해 기도문을 제작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오기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1988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회원결의문을 채택하고, 1989년 북한YWCA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해 현재는 회원들의 가입비 1%가 적립되고 있다.

1992년부터는 상설로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 YWCA의 독자적인 운동이 본격화된다. 1994년 중국 연변, 1996년 미국 뉴욕, 다시 2013년 중국 연변에서 한민족여성대회를 열고 세계 여성들과 연대했다. 1997년부터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을 시작해 2018년 현재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모금과 지원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탈북여성들과 교육을 함께하는 '길위의 평화학교'를 열었고, 2015년 국내외 여성평화운동가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여성평화걷기와 여성평화심포지엄 등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95주년 기념사업으로 2017년 시작한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2022년까지 해마다 연다.

2018.9 한국YWCA



표지이야기

8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대전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열린 2018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청년CPR캠프'에서 청년들이 YWCA 풍선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년 10월 주요일정

10월 1일~2일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10월 12일

여성폭력시절장 네트워크모임

10월 13일

청년기자단 4기 정기모임

10월 16일

한국YWCA 후원콘서트 'YANA'

10월 23일

서부지역 회원대회

10월 24일

북부·경기지역 2차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10월 27일

경제교육센터 청소년 '세계지갑여행'

제54권 제7호 통권 553호

2018년 9월 22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 · 문미란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신민희 · 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04 **이달의 생각** 4차 산업혁명 시대 'YWCA'를 생각하다 | **이영희**

05 **말씀묵상**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 **김효숙**

특집 'YWCA 지역여성운동'

06 ①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 | **신민희**

08 ② 청주YWCA, 여성주의로 지역운동을 하다 | **이혜정**

기획 '청년과 리더십'

10 ①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청년을 숨쉬게 하다 '청년CPR캠프' | **손지민**

12 ② 대학·청년담당 활동가 해외연수 잠시 멈추니 안 보이던 '길'이 보였다 | **나희진**

14 ③ 아시아태평양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 하나된 일곱 국가의 마음 | **양동언**

초점 '청소년보호 국제세미나'

16 ① 영국, 한번의 그루밍도 처벌한다 | **송다운**

18 ② 스웨덴은 왜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가 | **송다운**

20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국회 법률개정부터 나서라 | **천유란**

22 **강연** YWCA 지속가능포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과 교육' | **손지수**

24 **국제** 청소년이 만난 '히로시마 평화순례' | **이태인**

26 **이달의 현장** ① YWCA 중부지역 회원대회 | **문윤희**

28 **이달의 현장** ②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 | **김민주**

30 **이달의 현장** ③ Y-틴 전국회원대회 '역사 속 진실에 답하다' | **육예진**

32 **이달의 현장** ④ Y-틴 일본군 '위안부' 역사알리기 8·15전국캠페인 | **이소연**

34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① 순천YWCA Y-틴 농촌체험 봉사활동 | **김원지**

36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②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천원의 장학금' | **강하자**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책 <그녀 이름은> | **김신애**

40 **연합회 소식**

45 **회원YWCA 소식**

4차 산업혁명 시대 'YWCA'를 생각하다



이영희
한국YWCA연합회 제2회계, 실행위원

한국YWCA는 목적문에 나와 있듯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고 암울했던 시절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신에 바탕을 둔 여성단체로 창립돼 여성들의 삶을 향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지금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현재 느끼는 것보다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을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포럼에서 화두로 제시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은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나 아날로그 교육을 받고,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기를 전후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들의 일생은 변화의 연속으로 빠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어지럽기만 하다.


반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나 교육 받고 성장한 젊은 자녀 세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이 부모 세대에 비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명암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20~30대를 학업과 취업 이외에는 결눈질할 틈도 없이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을 뒷받침해 주듯 현재 한국YWCA 위상은 회원의 수나 리더십 정도에서 세계 120여 개 YWCA 중 1, 2위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20~35세 미만의 젊은 회원의 수는 적어 선두그룹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YWCA는 '회원YWCA 현장준칙'에 35세 미만의 이사를 10%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청년YWCA도 지역을 넘어 전국협의회 체제로 확대해 전국단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니 고무적인 일이다.

대학·청년YWCA가 과거 지역에 한정된 활동을 할 때는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전국의 젊은 회원 대표들이 모여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들 특유의 끼와 창의성이 더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도 살아났다.

한국YWCA는 사회 변화기마다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 각각에 알맞은 대안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의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YWCA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려면 우리 몸의 허리에 해당하는 젊은 회원들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젊은 회원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YWCA 정체성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녹여내는 일,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뒷받침해주고 활동의 장(Field)을 펼쳐주는 일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한국YWCA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뤄지는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할 젊은 회원이 넘쳐나길 기대해본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김효숙
목사·장신대 교수

누가복음 2장 41~52절

(전략)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중략)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후략)

한국에서 기독교는 언제부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고 싶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매우 불편한 하나의 '종교집단' 정도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고, 다시 귀향길에 나섭니다. 당시 유월절 행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고향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실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놀란 부모는 예수를 찾아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있었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되묻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의 틀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녀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을 마음에 둔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에 나타납니다.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연회 책임자가 아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 알립니다. 예수는 왕후를 부를 때 사용된 '여자여'(gumnai)라는 호칭으로 그의 어머니를 부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마리아는 다 이해한 듯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고 일꾼을 불러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킨 목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기로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여기서 '참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참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이 사회가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오셨습니까? 지난 세월 YWCA의 비전과 사명에 충실했지만 술한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보고 좌절하진 않으셨습니까? YWCA는 '교회 밖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가나안성도'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 예수를 잃어버린 이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교회 밖의 교회'입니다.

요셉도 함께 예수의 말을 들었지만 마리아만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성에게 보이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YWCA를 통해 이 땅이 생명의 온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YWCA 실무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지역여성운동 강의를 집중해 듣고 있다.

올해 YWCA 운동정책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앞으로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2018 YWCA 실무정책협의회가 9월 7일(금) 서울YWCA 강당에서 진행됐다.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활동가 150여명이 참석해 2018년 YWCA 중점운동을 평가하고, 2019년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젠더관점과 지역성을 강화한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으로 지역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YWCA 지역여성운동 흐름을 살펴보고, 어떤 지역여성운동을 펼칠 것인지 모색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곽지영 연합회 실행위원은 문헌자료, 활동가 면접조사,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곽 위원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과 여성이 시민사회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분권과 자치 시스템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것에 달려 있고, 자치의 주체로 여성인식을 키우고 여성이 지역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YWCA는 지금 활동하는 여성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공동체 이념에 기초해 시대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의운동을 실천해왔으며, 전국 52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여성운동 조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YWCA 지역여성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해온 YWCA 운동의 성격은 무엇인지, 지역여성운동 주체로서 YWCA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은 지역여성운동이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시대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YWCA 지역여성운동 조직과 활동은 어떠한가, YWCA 지역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로 정리해 질문한 뒤 YWCA 지역운동의 특성을 설명했다.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곽지영 연합회 실행위원, 김경희 중앙대 교수, 이해정 청주YWCA 사무총장, 배정미 연합회 중점운동국장(사진 왼쪽부터)이 발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설립된 YWCA 초창기는 여성 문제에 집중하면서 당시 삶의 기반이었던 농촌과 지역이 강조됐고, 1950년대는 여성지위 향상과 농촌의 보건과 위생문제, 1970년대는 소외지역으로서 농촌지역 개발과제와 여성취업 지도, 근로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1980년대는 평화와 통일, 환경보존, 바른교육, 여성정치 참여 등 정책변화와 함께 여성 관련 특성이슈나 지역성을 넘어서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0년대는 책임 공동체, 보살핌 공동체, 정의 공동체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슬로건에서 보듯 YWCA 운동에 주체로서 여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6년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명사랑공동체운동으로서 '민들레운동'을 제안했고, 2014년부터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한다. 2016년에도 탈핵생명, 성평등을 2대 중점운동으로 집중하게 되고, 2018~2019년 방향으로 지역과 여성(젠더) 관점을 접목한 운동과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곽 위원은 YWCA 지역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려면 YWCA는 지역여성운동을 하고 있는가, 지역여성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고 싶은 지역여성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기초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에 주목하라

두 번째 강의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가 '한국사회 변화 물결과 여성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YWCA 운동의 주체로서 2030여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성차별과 사회불평등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갖고 있는 2030여성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페미니스트를 선언하며 넷(Net)과 광장의 주체로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19대 대선에서도 같은 연령대 남성에게 비해 6%p 이상 높은 투표율로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도가 매우 높다.

김 교수는 특히 다양한 여성이슈와 정책이 성평등 의제로 부상했음에도 기존 여성정책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전히 남성중심 정치구조와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을 근본이유로 들었다. 즉 누가 여성정책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냐는 질문이다. 따라서 YWCA가 신가부장제로 불리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2030여성을 비롯한 청년여성 정책과 성평등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배정미 연합회 중점운동국장이 YWCA 지역여성운동 사례로 6·13 지방선거 YWCA 의제활동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했고, 이해정 사무총장이 청주YWCA 여성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실무활동가들은 2018년 YWCA 탈핵운동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2019년에는 지역 에너지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제안했다. 성평등운동은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역여성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제안했다. 



청주YWCA가 2017년 우리마을 위험ZERO 프로젝트로 진행한 '무단투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이 있었는가

청주YWCA는 청주지역 여성들의 삶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일자리, 보육, 환경, 먹거리 등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YWCA 조직의 힘이나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부터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과 전략을 갖고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활동범위와 여성 주체성의 측면에서 분명 지역여성운동을 전개해왔다.

청주YWCA에 여성주체가 확보되고 대중화된 시기는 1988년 회관건축 이후인 1990년대로 볼 수 있다. YWCA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넘어 여성들의 삶과 요구를 발견하고, 공부하고, '여성'으로서 연대를 이루자 지역사회에서 대중적 여성운동체, 사회운동단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YWCA는 지역여성운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략을 세워 나갈 여력이 없었다. 2000년 초반 여성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청주YWCA는 위탁시설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

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주력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의 특성, 다양한 정치지향을 가진 구성원, 보수적인 기독교 문화 등으로 YWCA 운동은 탈정치화되고 전국 의제나 교육, 개별실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결국 YWCA 운동은 여성정치 세력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지역사회 정치문화와 법제도, 성별역할 관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2014년 한국YWCA는 탈핵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했고, 전국적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때 청주YWCA도 지역에서 여성리더를 키우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여성이슈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2018년 한국YWCA는 중점운동의 지역화 전략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여성주의와 지역운동이 만났을 때

청주YWCA는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

고 있는가. 첫 번째 사례는 여성영화제와 영화보기 소모임 '영자씨'에서 출발한다. 1999년 여성주간행사로 시작된 청주여성영화제는 숱한 어려움을 딛고 여성주의 지역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소모임을 통해 지역여성들의 역량을 축적하고, YWCA를 넘어 지역여성 문화운동을 지향하는 독자조직으로 확대한 것이다. 충청북도 여성문화제라는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던 힘도 지역여성들의 경험과 열망이 축적된 성과에서 나왔다. 이제는 지역여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지역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주의학교와 기독교여성아카데미다. 청주YWCA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0회 이상 여성주의학교를 진행했다. 여성주의를 만난 참여자들은 '어렵고 불편하다' '페미니즘보다는 양성평등이나 휴머니즘이 보편적이다' 등 고백을 쏟아낸다. 이런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바탕에 여성이 주체로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도를 만들게 된다. 2015년부터 진행한 기독교여성아카데미는 기독교여성운동체로서 YWCA 주체들이 성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여성으로서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세 번째 사례는 여성의 눈으로 마을을 재구성하는 '젠더폭력방지 프로젝트, 안전마을 만들기'다. 여전히 밤길 다니는 것이 위험하고, 평등한 연애를 꿈꾸었으나 생존까지 위협받으며,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손쉬워진 불법카메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게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현실이다.



2016년 제작한 돌봄노동자 인터뷰 다큐멘터리 '목소리들의 풍경'

2014년 성평등공간 모니터링으로 시작된 안전마을 만들기는 우리마을 위험ZERO 프로젝트, 꼼짝마 바바리맨 퇴치작전으로 불린 감시의 눈 프로젝트, 우리마을 상상 프로젝트 등을 펼쳤고 성범죄 핫스팟지역 모니터링, 학원내 데이트폭력ZERO, 학원이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모니터링으로 이어졌다. 이런 활동은 여성이 공간의 주체가 되고,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이해되고, 생활정치의 힘으로 불평등을 개선하는 경험이 되었다.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보이고 우리의 참여를 통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의제를 설정할 것인가. 지역 속으로 개방될 수 있는가. 1995년 청주YWCA가 30주년 사업으로 펼친 '동대' 생활협동조합운동, 2004년 한국YWCA가 중점운동으로 추진한 생명사랑공동체 민들레운동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풀뿌리 여성공동체운동의 성과와 실패는 YWCA 조직에 어떻게 성찰되고 평가되었는가, 지금의 YWCA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최근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한국사회 변화는 지역여성운동의 지형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YWCA 내부에서도 지역성, 여성성, 운동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 주체형성, '공간에 기반한 중점운동'에서 '여성주의에 기초한 지역여성운동'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늘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간 YWCA, 여성주의의 선명한 담론과 지역운동이 만났을 때 불편하지만 거쳐야 하는 질문과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2016년 어린이들과 함께한 꼼짝마 바바리맨 퇴치작전 '감시의 눈' 프로젝트

청춘을 숨쉬게 하다 '청년CPR캠프'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청년CPR캠프가 운영한 '청춘바'에서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손지민

한국YWCA연합회 청년기자단 4기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던 날, 60여명의 청년들이 대전에 모였다. 2018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가 8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2박3일간 대전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는 처음으로 YWCA 회원이 아닌 일반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캠프'로 진행됐다. 이번 회원대회 슬로건인 '청년CPR캠프'는 심폐소생술(CPR)에서 이름을 따왔다. 연대(Connect)와 놀이(Play), 회복(Recover)을 뜻하며 숨 막히는 세상 속 무한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진정한 쉼을 통해 회복하자는 취지다. 얼마나 쉬고 싶었으면 쉼을 주제로 한 캠프까지 열렸을까. 청년들의 쉼과 회복이 가득했던 현장을 소개한다.

'시간낭비' 좀 해볼까

청년들이 모인 대강당 곳곳에는 '회복'을 위한 장소가 있었다. 평소의 고민을 물어볼 수 있는 '고민묘지'에는 익명으로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했다. 청년들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말하기 어려운 고민까지 눌러 적어 묘지에 묻으며 그동안 안고 있던 부담감을 떨쳐냈다. 지친 청년들은 상시 운영되는 '청년수혈소'에서 맛있는 음료와 간식거리를 먹기도 했다.

청년들의 연대와 쉼, 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이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 곳은 날씨 소식에도 청년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편을 나누어 응원하며 열

띤 경합을 펼친 '소소한 운동회'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지상 편과 수중 편으로 나누어 진행된 운동회는 활력을 되찾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청년들은 휴학을 해도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쉼'은 또 다른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청년CPR캠프는 '아무도, 아무것도'란 시간을 만들어 바쁘게 사는 청년들에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컬러링북, 영화 감상, 명상, 레고 만들기 등을 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청년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며 "회의와 교육이 아닌, '시간낭비'를 하는 프로그램이 새롭다"고 말했다.

배움을 위한 프로그램도 빠지지 않았다. 사람이 책이

되어 다양한 주제를 나누는 '사람책방'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강연과 달리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사람책'과 직접 소통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젠더, 페미니즘, 성(性), 인권, 탈핵, 평화, 국제활동, 여행, 아르바이트, 기본소득, 사회복지, 탈북, 호기심 수집 등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가득했다. 청년들은 듣지 못한 사람책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다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 밤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별빛음악회'에서는 하늘과 별을 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별빛 가득한 여름밤을 선물했다. 강당에 모인 청년들은 버스킹크루 '남녀남녀'의 공연을 즐기고 장기 자랑으로 직접 무대를 꾸몄다. 함께 신나게 뛰놀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았다

여유를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얻었다. 마지막 날 '청년약방'은 캠프기간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 용기, 자신감, 안정, 시간, 좋은 환경, 지혜, 희망, 판단력' 등을 스스로 처방하게 했다. 중앙임원들은 약사가 되어 젤리와 사탕 등으로 만든 약을 참가자들에게 선물했다. 청년들은 처방받은 약을 품에 안고 돌아가면서 바쁜 시간 속에 잊고 지낸 것을 떠올렸다.

이번 회원대회를 위해 힘쓴 청년들의 노력도 빛났다.



참가자들이 '사람책방'에서 안다비 호기심 수집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무엇보다 4월부터 기획을 시작한 대학·청년Y 전국협의 회 중앙임원과 운영위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김예지 기획국장은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유익하게, 간만에 신나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기획부터 진행까지 청년이 주도한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한 참가자는 "다른 캠프와 달리 청년을 위한 '쉼'이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좋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각박한 현실의 삶을 잠시 멈추고, 웃으며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청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캠프라며 "또 참가하고 싶다" "힐링과 행복의 시간이었다" "헤어짐이 아쉽다"는 평가가 자자했다.

청년들은 학점관리, 대외활동, 자격증, 어학연수 등 '스펙 쌓기'를 위한 노력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자신을 잃기도 한다. 'N포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청년CPR캠프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청년 세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청년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자리는 부족하다. 청년운동 안에서조차 '청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빠져 있던 것은 아닐까. 치열한 경쟁에 지친 이들을 숨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YWCA



청년들이 '소소한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준비하고 있다.

잠시 멈추니 안 보이던 '길'이 보였다



2018 회원YWCA 본부 중견 실무활동가 해외연수가 8월 26일(일)부터 8월 31일(금)까지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그린보트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7개 YWCA(대전,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전주, 청주) 대학·청년담당 실무활동가를 비롯해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임원, 연합회 활동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나희진
대전YWCA 간사

간사인 나도 청년이다

8월의 마지막 주 2018 YWCA 대학·청년담당 실무활동가 해외연수로 그린보트에 올랐다. 출국 전날까지 맡은 '일들'에 지치고, 돌아오면 쌓여 있을 업무에 걱정이 앞섰다. 그다지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돌아켜보면 청년의 건강한 삶을 고민하는 나 역시 청년이었음에도 늘 지쳐 있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나의 상태를 생각해 볼 기회와 여유조차 없었다. 이런 내게 그린보트는 넓고 자유로웠다. 이번 연수는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통신이 끊겨 연락을 받을 수도 없었다.

객실에서 창문 밖에 보이는 바다와 하늘을 보며 기대앉아 편지를 쓰기도 하고, 피곤하면 노래를 들으며 낮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 속에 같은 고민을 하는 실무자들과 고충을 나누고, 내가 청년운동가로 일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했다.

대전YWCA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무렵 활동하던 청년 회원은 4명이었다. 그래서 YWCA 청년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어떻게 더 많은 청년들을 오게 할 수 있을지 가장 먼

저 고민했다. 4년이 흐른 지금 대전YWCA 청년 회원은 38명이 되었고, 매일 청년들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생겼다. 인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열정으로 도전하는 주체적인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슈를 갖고 활동을 만들어 갔으면 했다.

이런 고민을 나 혼자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도전이자 부담이었다. 마찬가지로 회원YWCA 대학·청년 담당 실무자는 1명씩이고, 다른 직원들과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학·청년Y 조직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것은 간사 개인의 역량과 재량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린보트에 함께 모인 대학·청년 담당 실무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지쳐 있었다. 이런 고충을 나눌 자리가 필요했고, 그런 기회를 빙자한 쉽도 필요했다. 우리도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었고, 청년으로서 청년활동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보트에서 동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



나희진 대전YWCA 간사(가운데)가 토론하고 있다.

YWCA 청년들은 호기심으로, 재미있어서, 감사님이 좋아서 등 단순한 이유로 YWCA에 오는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청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한 봉사활동, 교육지도 등을 기회를 만들고 대학·청년 조직을 확대해나갔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청년운동을 꿈꾸는 청년들은 만날 수 없었다.

요즘 청년들은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YWCA에 오는 것도 참가 이유가 필요하다. YWCA에 오는 이유가 스펙 쌓기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재미, 애정,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칭찬하고 반겨주는 곳,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회원YWCA의 어떤 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활동가들이 끊여주는 라면을 먹으러 오고, 대전YWCA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대전YWCA 문화의집이 곧 내 집"이라는 '문집내집'처럼 그 YWCA 청년운동의 큰 상징이자 이유였으면 했다.

청년에게 쉽고 도전할 힘을 주는 YWCA

그린보트를 탄 첫 날은 신기하고 새로웠다. 그러나 이내 돈을 쓰면 즐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한국YWCA 100주년을 기념해 청년들을 그린보트에 태운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돈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을까? 선내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선택적으로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청년들이 이곳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겠다고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많은 질문이 생겼다.




대학·청년담당 실무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실 크루즈가 좋았다기보다는 이곳에서 만난 여유와 쉽, 함께한 사람들이 좋았다. 크루즈에 대한 동경으로 우리 청년들이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YWCA 청년운동에 걸맞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린보트에서 잠시 청년들과 연락이 끊겼다. 그러자 청년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휴대폰에게 해방되자 하늘과 바다가 보였고, 사무실과 행사장에서 뛰어다니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폭 할 수 있었다. 내가 쉬게 되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였다. 우리 청년들도 학교생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무언가 자꾸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회에서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마냥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슬프게 청춘의 시간을 쓰고 있다. 나를 비롯한 청년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의미 있게 쉴 곳이 YWCA가 되었으면 한다. 격려와 칭찬을 듣고, 다시 희망을 찾아 도전할 힘을 얻었으면 한다. YWCA 청년운동이 이렇게 청년들을 응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방향으로 항해하면 좋겠다.

나의 지친 모습이 기억이 안 날만큼 따뜻하고 소중한, 꿈같은 한 주였다. 낮잠, 바다와 하늘의 푸른색,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청년시절 이야기, 동료들과 새벽까지 나눈 고민과 이야기도 잊지 못할 것이다. 동료와 친구도 얻었다. 조금 더 내가 괜찮아진 것 같다. 이 힘으로 더 버티고 나아갈 수 있을 거 같다. YWCA에 오는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오사카YWCA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자매프로그램에 참가한 7개국 청년들이 오사카 센리YWCA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양동연

서울YWCA 평화통일 청년동아리 '피스톡톡' 2기 회장

우리는 자매다

오사카YWCA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7월 20일(금)부터 8월 12일(일)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청년을 초청해 '아시아태평양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sia-Pacific 'Sisterhood' Program(아시아태평양 자매 프로그램)과 아시아태평양 여성청년국제포럼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권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태평양 자매프로그램에는 만 26세 이하의 7개국(한국, 네팔, 대만, 미얀마, 호주, 태국, 필리핀) 청년여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주간 오사카에 머물며 일본 문화를 배우고 다른 국가 청년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쌓았다. 일본어 교육, 일본 리더와의 만남, 평화축제, 국제포럼의 4가지 활동으로 이뤄졌으며 서로를 자매로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가 되었다.

나라별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평화축제에서 '자

매'들은 프레젠테이션, 대표음식 소개, 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나라를 소개하고, 여성이슈를 발표했다. 호주에서 온 코트니(Courtney)와 필리핀에서 온 리자(Rizza)는 여성인권 문제를 발표했다. 코트니는 폭력이나 살해 위협을 당하는 여성들을 구조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담담하게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소개했다.

자신의 사례를 통해 필리핀 여성들이 처한 인권문제를 고발한 리자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다. 열심히 공부해 디저트를 만드는 큰 회사에 입사한 리자는 수십 명의 요리사들과 함께 일했다. 그러나 남성 요리사들의 텃세가 심했고, 여성은 경쟁할 가치도 없으며 여성과 함께 일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리자를 내보내기 위해 온갖 음해를 꾸며냈다. 냉동창고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말로 수치심을 줬다. 리자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심각한 슬럼프를 겪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현실에 절망해 저항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리자에게

YWCA가 손을 내밀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일깨워주며 다시 일어날 힘을 줬다. 현재 YWCA에서 일하고 있는 리자는 지금을 '두 번째 인생'이라며 같은 피해를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통 음식 만들기와 춤, 공연도 펼쳐졌다. 미얀마의 산(San)과 태국에서 온 페티(Perty), 네팔에서 온 아누(Anu)는 전통 춤을 보여줬다. 리사(Lisa)는 대만에서 가져온 타피오카펠을 넣은 전통 음식 버블티를 만들었는데 참으로 맛있었다.

나는 아리랑과 케이팝(K-POP)을 엮은 메들리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아리랑의 전통선율에 모두가 귀 기울였고, <별에서 온 그대> 주제곡인 'My Destiny'를 연주하자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세 번째 곡인 아이돌 가수 워너원의 'Energetic'을 들을 땐 흥얼거리며 즐겼고, 마지막 곡인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연주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쳤다. 대부분이 노래를 알고 있어 새삼 케이팝의 인기를 실감해 뿌듯했다.

한국 미투운동, 박수를 받다

자매프로그램의 마지막이자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아시아태평양 여성청년국제포럼'이 8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2박3일간 열렸다. 다섯 번의 리더십 프로그램과 강연, 발표와 토의로 진행된 여성청년국제포럼에는 7명의 자매를 비롯해 온두라스YWCA와 한국YWCA에서 온 4명의 게스트, 50여명의 일본YWCA 청년들이 참석했다. 한국 게스트로는 부산YWCA 김신향 간




양동연 서울YWCA 회원이 미투운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와 대전YWCA 이수진 대학·청년Y 회원이 초청됐다.

여성청년국제포럼은 변호사인 안드레아 미첼 그라디즈 디아즈(Andrea Michell Gradiz Diaz) 세계YWCA 부회장의 강연으로 세계 여성인권의 실정을 듣고, 국가별 여성인권 이슈를 발표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는 첫째 날에는 한국과 한국YWCA를 소개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의 미투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청년들은 미투운동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미투운동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2차 피해는 없었는지, 남성들은 미투운동을 보고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미투운동은 여성들이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고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고 답하자 청중들은 박수로 응답했고 여성들이 힘겹게 낸 목소리를 지지했다.

올해 7-8월은 일본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녹아 버릴 것 같은 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했다.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긍정적인 힘을 끌어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확장했다. 아직 많은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각자 나라로 돌아온 우리 자매들은 차별에 목소리를 내고, 함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사카YWCA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석한 청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라 챔피언 영국 로더럼의회 의원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번의 그루밍도 처벌한다

송다운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인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8월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한국의 사례가 발표됐다. 영국 로더럼의회 의원이자 노동당 국회의원인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이 발표한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연설을 요약했다.

단 한번의 '그루밍'도 처벌한다

2014년 8월 영국 시의회가 지원한 조사를 통해 요크셔주 로더럼에서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적어도 1,400명의 아동이 조직적 성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전 세계로 알려져 아동 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나는 로더럼의 아동 성착취 문제에 적극 대응했다. 먼저 영국 법률의 효과를 따져보는 초당적 위원회에서 아동보호 시스템 개선에 관해 여러 권고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요한 권고안 중 하나는 '그루밍'(grooming)에 대한 법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루

밍이란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존 법률에서 성인이 성착취 목적의 만남을 두 번 이상 가져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법 개정은 대중에게 '그루밍'을 통한 아동 성착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또 다른 주요 권고안은 모든 법안에서 '아동 성매매'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매매'라는 용어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란 인상을 주고 아동에게도 책임이 있

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는 법적 용어로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배심원 의견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랜 캠페인의 결과로 중범죄법에서 '아동 성매매' 용어가 삭제되었고, 거리범죄법도 개정되어 거리에서 상업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아동은 피해자로서 성매매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매우 중요한 개정이었다.

영국 사법제도가 피해자와 증인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아동 성착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이제 지정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을 민감하게 처리하며 증인에게 공정한 발언기회를 제공한다. 재판과정도 학대를 당한 아동의 증언에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주장한 혐의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아동과 부모, 교사, 단체들과 협력하며 아동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예방을 위한 일련의 정책 권고안이자 공유자원인 '데어투케어'(Dare2Care)를 개발했다. 이 아이디어는 큰 영향을 미쳐 최근 정부는 온라인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약속했다.


아동 성착취에 '동의'는 없다

인터넷의 등장은 아동에게 새로운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기술 활용도가 높아져 세계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연결될 수 있다. 영국의 국가범죄청과 경찰은 범죄자들이 실시간이란 신속함이 가진 취약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아동 성착취의 95% 이상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졌다. 그만큼 아동이 온라인 그루밍에 취약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아동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과감한 운동을 벌여왔다. 그 중 한 가지로 아동이 무심코 성인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연령확인 체계를 강화했다.

한국 법률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형법 제305조에 13세로 명시된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인 '성교동의 연령'이다. 이는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흔히 사용돼 13-18세 아동을 성적 행위에 동의한 당사자로 그려낸다. 이 연령을 16세로 올리자는 청원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성교동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면 영국 기준과 같아지며 아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18세까지 올린다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연령'과 '성교동의 연령'의 차이로 발생하는 모호함을 없앨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 함께 한국 국내법은 국제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동 성착취 방지 전담기구가 부재하고 정책은 단편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 전담 소위원회를 만들고 아동권리 옴부즈만 성과를 평가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문제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 아동에게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위험에 대해 가르치고 또 래집단의 압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위험에 취약한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식제고를 위해 2012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 중 '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성관계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기를 제안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난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원을 보호하는데 넘지 못할 만큼 높은 장애물은 없다. 나는 앞서 말한 사례를 겪으며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다. 한국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낙인찍어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들에게 긴급 지원을 속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과 사회인식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페르-안데시 수네손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 대사(오른쪽)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스웨덴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송다운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인턴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 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8월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유럽연합, 영국, 한국의 사례가 발표된 가운데 페르-안데시 수네손(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 대사가 성매매에 이용된 당사자를 처벌하는 대신 성적 서비스 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 업소를 처벌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성구매를 범죄로 규정하자 인식이 달라졌다

세계에서 약 550만명의 아동들이 인신매매에 이용당 하며 인신매매 대상자의 80%가 여성이다. 이를 통해 얻는 수입은 1,500억 달러로 2/3가 성착취로 얻어진다. 막대한 이득을 위해 국제적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스웨덴은 절대적으로 성매매가 직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법에서 성구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여아를 향한 성매매 수요 자체가 낮아 조직적으로 성착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웨덴도 1970년대까지는 성매매가 합법이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분노하는 강력한 여성운동이 일어났다. 여성단체들이 국가에 조치를 촉구했고 정부는 성매매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판매자들의 과거 배경이 불우한 사례가 많았다. 성구매자를 조사한 인터뷰에는 “게으른 여성들에게 일을 주고, 돈을 준 것일 뿐이다” “성욕구 해소를 위해 정당하게 돈 주고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구매가 불법이 되어야 할 이유로 충분했다.

이후 성적 서비스 구매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구매자만 처벌하면 종사자들이 위협해진다”, “성매매가 음성화된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단 한 건의 폭력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법은 성판매 여성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성판매자 탈출구 조항’은 탈성매매까지 이어지게 했다. 성구매를 범죄로 규정하자 성구매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 국민의 성구매 범죄화에 대한 지지도는 70%로 높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성구매로 오는 이득과 매력의 전혀 없기에 성매매를 억제하는 힘이 된다.

법 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성판매자 탈출구 조항과 함께 스웨덴 일부 지역에서는 성착취 피해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했다. 외교부 반인신매매 대사로 임명되고 스톡홀름 지역의 성매매 단속에 동행한 적이 있다. 그때 하루에 10명의 남성을 상대하는 젊은 루마니아 여성을 만났다. 그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며 금전적으로도 만족스러워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여성을 처벌하는 대신 사회복지사를 배정하며 “구매자들을 계속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계속 방문해 복지와 지원체계를 설명했지만 똑같은 대답만 들었다. 어느 날 끊임없는 방문 끝에 여성은 “사실 알선업자가 있고 성매매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털어냈다.

스웨덴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법 개정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면 거짓말이다. 판사, 검사, 경찰을 설득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성평등을 학교 교과과정에 편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각계각층에서 시도했다.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들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남자는 성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그 결과 성적 서비스 구매 범죄화에 대한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다. 성매매 조직체계는 거의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조직적 성매매가 있더라도 스웨덴 사람

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일 것이다.

성매매가 정말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착취,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체계는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각국의 문화, 정부와 경찰의 태도에 따라 집행 정도는 다르다. 대부분 나라에서 18세 미만 아동 성매매(성착취)는 불법이다. 성구매와 판매가 모두 불법이지만 집행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 여러분은 성매매가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착취당하는 사람이 알선업자가 있다고 쉽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독일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성매매 업체를 만들어 등록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사회안전보장제도도 만들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성매매가 30% 증가했다. 성구매가 하루에 120만건이 이뤄지고 40만명 이상의 여성이 성매매 종사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98%는 독일인이 아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발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취약한 저개발 국가에서 온 여아와 여성들이 독일 성매매 업소로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을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등록자는 단 40명이다. 독일 경찰도 이 법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대신 수익 150억 유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로비활동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법을 바꾸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진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창문 안에 있는 여성을 마치 냉장고 안에 진열된 물건을 보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성평등한 사회는 기본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다. 성착취 근절은 최우선 과제다. 스웨덴과 한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포함한 유엔의 ‘어젠다2030’에 가입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성매매·착취를 근절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토론자들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천유란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간사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8월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과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은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지 대책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각계각층의 제안이 실현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길 희망한다.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어플리케이션 규제 강화하라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영국에서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규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온라인상의 아동 성착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한국 아동·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접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였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가장 높은 의견이 ‘유해 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 앱 규제’로 86.5%였다. 아동·청소년이 알선조직을 통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확충하라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아동·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1997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췄다. 그러나 매체 역기능 문제는 더욱 심해졌고, 2016년 조사에서는 사이버공간 내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25.2%로 나타났다.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로 치부하기엔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아동·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종 영상물에 대한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섹스팅’(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성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핸드폰으로 주고받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는 것) 규제가 시급하다. 또한 민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 보완이 선행돼 이를 근거로 상시 모니터링과 규제, 단속, 제도개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강화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안전망이 촘촘히 가동되는지 특히 복잡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발견-보호-탈위기-회복-적응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환류가 필요하다.

국회는 법률개정을 왜 외면하는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를 포함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성매수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십대 성착취 문제로 수차례 같은 권고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작년 8월 국회 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같은 권고에도 개정안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 대응 등 인권옹호를 담당하는 법무부를 소관하기에 법 개정에 적

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즉시 입법활동에 착수하고,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범국민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안수경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위원장

시민단체는 전문가와 결합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연계하며 청소년교육과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동시에 전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인 성매매는 모두 ‘성착취’이자 ‘인권침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성착취 범죄목격시 대응방법 등을 사회 전반에 퍼뜨려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청소년 성착취 피해, 기업도 책임져라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이 일부 대화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 전화방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돼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 아이디만으로 찾을 수 없다. 청소년 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은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고시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이유는 이들에게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업소 등이 아동 성착취를 방조했다면 벌금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위법행위로 걸려도 적은 벌금을 내고 더 많은 수익을 얻거나 업주를 바꿔 유사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근절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일본YWCA가 주관하는 2018 히로시마 평화순례가 8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당신은 정말로 히로시마를 알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태인

Y-틴 전국협의회 총무, 대구YWCA Y-틴 회장

일본YWCA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인 히로시마 평화순례는 1970년 일본YWCA 히로시마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올해 48회째를 맞았다. 1년에 한 번 청소년을 대상으로 3박4일간 '히로시마 연구여행'을 열어 히로시마 원폭자료를 전시 중인 평화기념자료관과 핵폭탄이 떨어진 현장인 원폭돔을 견학하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며 원폭 피해자의 증언을 듣는다. '2018 히로시마 평화순례'에는 일본과 한국, 중국, 온두라스 청소년들이 참가해 서로의 역사를 배우고 교류하며 평화를 생각했다. 한국YWCA에서는 Y-틴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이태인 총무와 홍다은 서부지역 회장, 천유란 연합회 간사가 참가했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본YWCA 히로시마 평화순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발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국 대표로 발표하는 것엔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두렵고 부담스러웠다. '위안부'는 결코 가볍게 말할 내용이 아니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의 잘못을 짚어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발표를 준비하며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논문을 읽고 참고자료로 발표에서 보여줄 영화 <귀향>과 <허스토리>를 두 번씩 보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대표적인 역사이자 사건이다. 새벽에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가 겪은 인권유린과 소녀에서 이젠 할머니가 된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강조하고자 했다. 2015년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과정과 내용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YWCA가 해온 활동도 전하려 노력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마쳤다. 통역을 담당하던 이윤철 선생님 덕분에 내용이 잘 전달됐다. 발표를 끝내고 돌아오니 밝았던 일본 친구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소감을 들었다.

일본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 전혀 배



Y-틴 전국협의회 이태인 총무와 홍다은 서부지역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운 적이 없다", "가해자의 역사와 피해자의 역사는 다른 것 같다", "여성들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히로시마에 대한 아픔을 가진 것처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가 주변에 알려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시각을 바꾼 것이 신기했다. 발표를 준비하며 염려한 걱정들이 사라지며 한편으론 울컥했다.

참가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이곳에 모인 모두가 히로시마의 아픔을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기에 피해국인 우리 생각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던 것 같다. 우리는 역사의 사실을 전달했다. 역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전달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단순히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성하고 공부해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은 변화가 평화를 가져온다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다루지 않듯 히로시마 원폭사건에 대해 한국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무지했다고 느꼈다. 히로시마 원폭사건은 우리나라에 광복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사건으로 배웠지만 일본에겐 그렇지 않았다. 원폭 이전에도 일본의 패전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공식적인 패배를 알릴 날을 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다. 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폭 이후 미국의 반응으로 봤을 때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실험하기 위해 당시 기회를 이용했다




참가자들이 원폭 피해자들이 치료 받던 곳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1945년 8월 5일 히로시마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각인 8시 15분 43초, 히로시마의 시간은 멈췄다. 폭탄이 떨어진 지점부터 2km까지 모든 것이 파괴됐다. 히로시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학도 동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와 수다를 떨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무언가 폭발했고 빛이 밝아지는 것까지만 기억난다고 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니 화상을 입고 깨진 창문 유리들이 온몸에 박힌 채 땅에 쓰러져 있는 여학생을 보고 아무도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두 번, 세 번 일어나던 생존자들은 세 발자국을 가지 못하고 하나 둘 쓰러졌다고 한다. 10초 전까지 대화를 나눴던 아주머니는 그림자만 남은 채 사라졌고, 자전거를 타려고 마당에 나온 아이들은 자전거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원폭 투하 당시 군부대로 사용하던 히로시마의 군사장소는 비어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의 몫이었다.

원폭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막을 배우기 전까지 히로시마 원폭투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건 일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2박3일의 시간은 내 시야를 넓혀줬고,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내가 히로시마 평화순례를 통해 달라진 시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들 중 달라진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이게 된다면 진정한 평화가 더 가까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손지수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

제3차 YWCA 지속가능포럼이 9월 6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과 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문헌규 비스나눔마을 이사가 '새로운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그리고 젠더'를, 조혜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민교육과 배움'을, 김순영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회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여성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사진 오른쪽부터). 주요 내용이다.

폐쇄적 구조를 고쳐라

4차 산업의 핵심은 기술이 직업을 대신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문직이 10년 안에 없어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이해 못하는 기득권층과의 세대갈등은 계속되고, 정부 정책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되는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법률싸움도 데이터로 이뤄진다. 상대의 심리압박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콘텐츠를 노출시켜 법정에서 승리하기도 한다.

프랑스 시민활동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시민활동은 4차 산업혁명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OGP(열린정부 파트너십 :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위한 다자협력)사업만 봐도 시민활동가가 한명도 없다. 무수한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지금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에 시민활동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우리 일상이 통제되고 있다. 삼성과 구글 등 기업은 끊임없이 다양한 기술을 만든다. 새로운 기술이 낳을 문제에 정부의 규제

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데이터 개방과 인공지능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가 거의 준비하지 않고 있다. YWCA는 글로벌 플랫폼을 뛰어 넘는 시민활동 전략과 조직력을 고민해야 한다.

공유경제와 데이터 민주화로 인공지능이 NGO 역할을 대신하게 될 사회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나라와 시민단체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뉴욕 케이스' 사례가 있다. 시민단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을 해주고, 정부나 기업에서 펀드를 받아 지원한다. 한국과의 큰 차이는 방향성과 정책이다. 한국은 청년창업가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방향으로 잡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 반면 미국은 글로벌 플랫폼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는 상사와 간사가 직접 만나 푸시(Push)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푸시'로 가야 한다. 공간 변화도 필요하다. 한



문헌규 이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민단체로서 YWCA 여성들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 성평등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 업무공간이 폐쇄적이라 소통에 단계가 많다. 아이디어 채택이 늦어지고, 시기를 놓친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짧아졌다. 5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탄력적인 인력 고용구조, 복지확대, 소통 중심의 업무구조 개선을 통해 신입사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융·복합할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에는 기계화, 수치화도 있지만 '사람 데이터'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YWCA는 네트워크에 큰 장점이 있다.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많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사람 데이터를 YWCA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독점이 아닌 공유에 달려 있다. 어떻게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지 고민해야 한다.

스타트업이나 기업에는 특히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최고 기술을 가졌다는 삼성보다 모바일 월드컵에서 더 인기를 끈 기업은 구글이다. 우승의 이유는 기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었다. 벤처는 숫자밖에 모른다. 스토리를 만들어줄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이렇듯 시민단체에게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하다. 외부인력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펀드 조성, 빅데이터가 그것이다.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동고용 체계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 단순반복 노동 직업은 사라지고 디지털 기반의 창의융합, 가치생산, 인

간감성적인 직업이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시스템도 등장한다. 4차 산업혁명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가치도 공유된다. 이제 시민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협업과 토론, 개방적인 주도문화, 소수문화 사이의 호혜적 관계 등이다.

미래학자나 기술이 보완할 수 없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는 시민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영역인 자기주도성, 변화 적응력, 창의융합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큰 과제일 것이다. 시민운동가를 사회혁신가인 '체인지 메이커'라고 한다. 공감과 행동이 핵심 키워드다. YWCA 여성들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 성평등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가 하던 일을 요즘은 소셜 벤처가 하고 있다. IT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청년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대학로의 '샘터'라는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그 안에는 대안학교, 공간 콘텐츠, 방송, 미디어활용팀도 있다. 현재 여성 중심의 많은 체인지 메이커 그룹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변화는 시작되어 사회를 바꾸고 있다. 쫓아가지 못하는 단체와 조직도 있다. YWCA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정책, 불특정 다수 여성에 대한 관심이었던다면 이전 기술, 경제에 관심을 끌어내어 체인지 메이커들과 네트워크하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여성운동과 시민교육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의 목소리, YWCA가 책임진다



중부지역 8개 YWCA 깃발을 든 기수들이 단상에 올랐다.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2018 YWCA 중부지역 회원대회가 8월 29일(수)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렸다. '당당히 서는 여성, 변화를 이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엔 YWCA 중부지역협의회 8개 YWCA(논산, 대전, 서천, 세종, 제천, 천안, 청주, 충주) 회원들과 연합회 활동가 등 420여명이 참석했다.

왜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

천안YWCA 한울난타 회원강사단의 난타 공연으로 YWCA 중부지역 회원대회의 막이 올랐다. 참가자들의 박수와 호응으로 열띤 분위기가 가득했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중부지역 YWCA의 기가 입장했다. 8개 YWCA를 대표하는 기수들이 단상에 올라 중부지역의 결속을 다졌다. 최애순 서천YWCA 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됐다. 김영란 논산YWCA 회장의 대표기도와 김옥순 청주YWCA 회장의 인도로 참가자들은 성경 마태복음 15장 21-28절을 읽었다.

김공자 예살림교회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 기준을 말한다. 배고픈, 목마른, 병든, 옥에 갇힌 사람에게 물, 음식, 옷을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큰 것을 따라가다 귀

한 것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부지역위원장인 김정민 대전YWCA 회장의 대회사와 한영수 연합회 회장의 격려사로 개회식이 열렸다.

이어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가 '지역에서 왜 YWCA가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가장 먼저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 흠·은·금수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 자신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신조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

그는 "옆사람을 밀쳐내고 앞으로 가는 오늘을 '팔꿈치 사회'라고 한다. 우린 무엇을 위해, 누구와 경쟁하는가? 서로를 살리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공멸을 향한 경쟁이 분명하다.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이런 경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가? 삶의 방향이 이미 '경쟁'으로 정해졌으니 '누구를 밟고 더 위로 올라갈지'를 가르치진 않았는지 반성해본다"며 기독교인의 성찰을 언급했다.


여성의 삶과 일상이 변하려면

이 교수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책연구기관이 부적절한 출산을 제고 대책을 내놓자 20대 여성들이 '정부가 내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사례를 들어 "여성들은 출산과업을 시작했는데 지방정부는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 미혼남녀 연땀어주기, 출산장려 청소년 개사경연, 출산장려 인구시계탑 등 현실성 없는 정책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정책이 반복되는 이유로 성평등 감수성에 취약한 다수의 남성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 찾았다. "지방정부에 여성 정치인이 몇 퍼센트인지 압박하고,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적극 전달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와 할당제 확보로 정치판을 공정히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의 일상이 변할 수 있다"면서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이 하는 지역정치의 중심에 YWCA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엔 회원참여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논산YWCA가 '씩터요 성평등' 플래시몹을 선보였고, 세종YWCA 성살림인형극단은 연극 '성평등, 함께 만들어가요'와 청주YWCA 큰입합창단은 개사곡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를 통해 YWCA 성평등운동을 표현했다.

문화공연에서는 가수 홍순관이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를 주제로 "세상은 평화가 없으면 큰 무덤일 뿐"이라며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강조해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의 대표자들이 나와 회원실천 결의문을 낭독했고, 참가자들은 결의내용을 반복해 외쳤다. 이계숙 천안YWCA 회장의 폐회기도로 회원대회는 막을 내렸다. 



천안YWCA 한울난타 회원강사단의 난타 공연



논산YWCA '씩터요 성평등' 플래시몹



세종YWCA 성살림인형극단의 '성평등, 함께 만들어가요' 공연



청주YWCA 큰입합창단이 개사곡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를 부르고 있다.

대화가 평화를 만든다



평화포럼 참가자들이 사람들이 손을 놓지 않고 교차된 팔을 풀어보는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민주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
청년기자단 3기

잡은 두 손, 절대 놓지 말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회담까지 우리는 지금껏 남북관계에서 없었던 평화의 흐름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쉽게 진전될 것만 같아 보였던 종전선언, 비핵화 등은 중간중간 암초를 만나 정체되었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통일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 설명하는 자리였다.

‘평화와 하나됨을 위한 이야기 교육의 길’을 주제로 강의한 창천교회 부목사인 손성현 신학박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포럼과는 다르게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동그렇게 모여 앉은 이들은 첫

번째 활동으로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결혼 후 분가, 어린 시절의 경제적 변화, 탈북 등 이사한 이유를 얘기했고 당시 느낀 감정과 생각을 털어냈다. 두 번째로는 ‘떠나온 곳’과 ‘도착한 곳’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색깔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모두 일어나 여러 명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활동도 이어졌다. 상대방의 손을 교차해서 잡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주어졌다. 단,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참가자들은 ‘절대 놓치지 말자’고 외쳤지만 복잡하게 교차된 손들을 ‘놓지 않고’ 푸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몸이 배배 꼬이기도, 실수로 손을 놓치기도 했다. 4명이 꼬인 손을 푸는 건 쉬웠다. 4명에서 8명, 그리고 23명 전체가 손을 잡기까지 사람들이 늘어

날수록 어려움은 커졌다. 그러나 전체가 손을 놓지 않고 풀어나가는 데 성공했을 땐 모두가 보람을 느꼈다.

창세기 27, 31,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비블리오드라마’(성경을 배경으로 만든 심리극)로 표현하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로 분장한 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져간다. 야곱은 그대로 도망쳤고, 20년이 흐른 뒤에야 에서에게 용서를 구한다. 에서는 야곱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용서한다.

참가자들은 성경 속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을 생각하고, 인물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했다. 야곱 역할과 에서 역할을 한 명씩 맡아 야곱과 에서 사이의 장벽을 상징하는 7개의 커튼을 두고 하나하나 커튼을 지나며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다. 야곱을 맡은 참가자가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기 직전, 에서 역할을 맡은 참가자와 등을 맞대고 서자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야기’ 화해의 단초가 되다

이번 포럼은 통일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통일은 정치적, 외교적 영역으로 다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오랜 시간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왔던 이들이 다른 한국전쟁과 이어진 대립으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이란 존재를 외면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렵고 복잡해 보였던 문제도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지난해까지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지금 남한과 북한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심리극으로 직접 이야기의 인물이 되어 보며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감정을 표현하며 갈등과 상처를 경험했고, 남과 북의 관계로 연결시켜 멀게만 느껴졌던 남북관계



손성현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를 내 일처럼 생각해봤다. 손성현 박사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으며 함께 공감하고, 몸을 쓰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며 “이야기는 화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 박사는 포용을 강조했다. 야곱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에서가 야곱의 사과를 쉽게 받아줬던 것은 포용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은 “난민문제를 다룬 YWCA 글로벌이슈 포럼에 참석했을 때 ‘평화에는 언제나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평화를 위해서 위험까지 안고 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남북관계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손을 뻗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70년 역사 동안 애증의 관계가 된 남북관계를 다룰 때는 마음 대 마음으로 다가가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평화로 가는 길에 존재할 어려움을 없애는 완벽한 특효약은 없다. 오랫동안 묵혀둔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8 Y-틴 전국회원대회가 8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렸다.

육예진

Y-틴 전국협의회 중부지역 총무, 총주YWCA Y-틴 회원

꿈을 손에 쥐어보다

8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와 청소년수련마을에서 1박2일간 2018 Y-틴 전국회원대회가 열렸다. 회원대회를 준비하면서 설레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회원대회가 시작되자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첫 만남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막바지엔 서로 아쉬워하며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기까지 했다. Y-틴 친구들을 만나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다.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우리 2조는 자동차공학연구소를 체험했다. 자동차 설계와 조립, 전체 시스템, 개별 부품의 동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행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자동차 부품 알아맞히기' 수업도 들었다. 자동차 부품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는 카드 두장씩을 조원들이 받아 실제 자동차에 붙어 있는 짝꿍(벨크로) 테이프에 붙이는 수업이었다. 조원들과 나도 평소 자동차 부품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어려워했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꿈을 가진 조원이 있어서 의논하면서 빠

르게 끝낼 수 있었다.

다음 수업은 '자동차 직접 디자인 해보기' 활동이었다. 모니터로 자동차 엠블럼과 외관을 디자인했다. 조원들은 펜을 들고 디자인에 집중했고, 개성이 담긴 각자의 엠블럼과 자동차가 탄생했다.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디자인한 차로 운전 시뮬레이션을 했다. 운전이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았지만 재밌었다. 색다른 경험이라 수업이 즐거웠다.

'성별 고정관념' 색안경을 벗어라

'일상을 바꾸는 성인지'를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성인지'라는 단어는 학교 수업과 YWCA 활동을 통해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도 어려운 단어라 걱정이 앞섰는데 실제로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다. 강의는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이란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형용사를 적는 활동으로 시작했다. 모두 자료집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그리고 형용사들을 이야기했다.

'여자다움'에는 '예쁘다', '날씬하다'가 많이 나왔고, '남자다움'에는 '근육질이다', '잘 생겼다'가 많이 나왔



게임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포스트 미션 인 역사'를 마치고 Y-틴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 10대들이 평소에 두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떠올린 형용사들이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배웠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이 당연하게 아니었다. 성별에 따라 기대하거나 요구되는 행동이 '고정관념'이었다.

'여성혐오'란 개념도 배웠다. 많이 들어본 단어였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내용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여성혐오'도 여러 유형이 있었다. 가부장적 시각으로 여성을 평가하고 멸시하는 멸시유형, 여성의 가치를 미모와 모성애로만 이야기하며 육아와 가사노동을 정당화 하는 숭배유형,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보고 평가하는 성적 대상화로 다양했다.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 동화 등 여성혐오가 생활 속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성별 고정관념이 편견과 혐오를 낳고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끼고 있는 색안경을 벗고 '여자답게' 혹은 '남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배우다

둘째 날 4부 지역 간사님들이 역사 주제를 정해주면 주제와 관련된 미션을 진행하는 '포스트 미션 인 역사'가 이어졌다. 우리 조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미션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가 적힌 조

각과 정답이 적힌 조각을 맞추는 게임이었다. 첫 시도에는 제한시간 안에 못 맞춰서 실패했지만 조원들끼리 역할을 정해 재도전에서는 쉽게 답을 찾았다.

두 번째로 '5.18민주화운동' 미션을 했다. 빙고판에 적힌 5.18민주화운동 문제를 풀며 빙고 한 줄을 먼저 만드는 조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세 번째로는 질문을 받으면 스케치북에 자기 의견을 쓰는 미션을 했다. 한 가지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서 좋았다.

마지막 미션은 '남북통일' 미션이었다. 조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북한말을 우리말로 해석한 뜻을 보고 몸으로 설명해서 조원들이 맞추는 미션이었다. 전달하려는 단어를 행동으로 전하려니 조원들에게 잘 설명되지 않아서 답답했다. 그래도 조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맞출 수 있었다. 네 가지 미션을 하면서 몰랐던 역사를 쉽고도 깊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올해 Y-틴 중점운동 주제는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지나간 발자취는 미래의 발걸음이 된다'가 슬로건이다. Y-틴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역사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늘 가득하다. 이를 위해서는 Y-틴이 모여서 중점운동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회원대회에서 전국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중점운동을 펼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눴다. 어떻게 하면 완성도 높은 활동을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활동이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 



거제YWCA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이 8월 11일(토) 거제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소연

거제YWCA 키다리학교 청소년(옥포고등학교 2학년)

YWCA 청소년회원 조직인 Y-틴은 광복절을 맞아 잊지 않아야 할 역사를 되새기고,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동시행동 캠페인을 펼쳤다. 31절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잇는 뜻에서 캠페인 시각을 오후 3시 1분으로 정했다. 8월 15일(수) 오후 3시 1분, 전국 6개 지역(거제, 대구, 대전, 전주, 진주, 창원) 소녀상 앞에서 Y-틴 일본군 '위안부' 역사 알리기 캠페인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라도지역 청소년협의회(광주, 군산, 남원, 목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소속을 비롯해 거제, 대구, 대전, 진주, 창원 등 13개 YWCA 청소년회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거제YWCA 캠페인 참가기를 실는다.

왜곡과 은폐에 침묵하지 않겠다

거제YWCA 키다리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일본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으로 받은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고, 일본의 공식사과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할머니들을 응원하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Y-틴 8·15 전국캠페인에 동참했다. 먼저 8월 11일(토) 키다리학교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정식명칭과 잘 알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와 고통 등을 영상을 통해 배우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리는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던 부분이 더 많았다.

아픈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오늘도 슬픈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은 우리 청소년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지지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알았다.

교육을 듣고 우리의 역사이자 아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배지 만들기 활동을 했다. 그 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의미로 각자의 가슴에 배지를 달고 거제시 거제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주변을 청소하고 마음을 담아 묵념했다. 우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황분희 거제시 위안부 기림위원회 회장님이 오셔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설

명을 해주었다.

전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평화의 소녀상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거제 평화의 소녀상은 바다 건너 대마도를 바라보며 의연하고 기백이 넘치는 표정으로 당당히 서 있다. 발 아래로는 할머니의 그림자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소녀에서 할머니가 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서 있는 소녀상은 일본의 계속 되는 역사왜곡과 역사은폐를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Y-틴 친구들은 평화의 소녀상처럼 '우리도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보지 않고 할머니들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엽서를 쓰는 활동도 진행했다. 다들 숙연한 분위기에서 청소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엽서로 표현했다. 엽서를 쓸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을지 힘들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이 전해져서 할머니들께 힘이 되기를 바랐다.

당당히 서 있는 소녀상

8월 14일(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거제기념식이 거제문화예술회관 평화의 소녀상 공원에서 열렸다. 기림의 날은 세상을 떠난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을 기념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



이민서 청소년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거제기념식에서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정했고, 거제시에서도 첫 공식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거제YWCA 키다리학교 이민서(거제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청소년 대표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청소년들이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학으로 키다리학교 청소년 모두가 참석할 수 없었지만 우리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랐다. 거제시장님을 비롯해 시의원, 각 기관의 대표, 명사들도 청소년 대표로 참가한 이민서 친구를 격려했다고 한다. 이민서 친구는 YWCA 키다리학교 대표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나는 평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곤 했다. 그러나 역사를 배우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함께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한다면 더 큰 힘이 되어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하는 역사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 피해자 할머니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역사 알리기 8·15 캠페인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워가게 되어 뜻깊었다.

YWCA 청소년들이 펼친 일본군 '위안부' 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의 살아 있는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꿈꾼다.



거제YWCA 키다리학교 강지은(해성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이 그린 엽서



순천YWCA '청춘불패'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원지

순천YWCA Y-틴 회원(순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농부를 만나다

농촌체험 전날 걱정과 기대 속에 순천YWCA에 도착했다. 처음 만나는 조원들과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1박2일간 어떤 요리를 할지 이야기했다. 다소 어색했지만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말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다. SNS 대화방을 만들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9시까지 모이기로 했다. 대화방에는 '일어났어?', '준비물 챙기라'는 말이 가득했다.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내에서 점심을 만들 줄 알았는데 밖에서 만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조원들이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갔다 와"라며 서로 챙기는 다정다감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했다. 떡볶이가 살짝 맛이 없었는데 간사님이 순발력 있게 라면 스프를 넣어 맛있게 만들어졌다. 정말 다행이었다.

남창우 순천 로컬푸드 경영본부장님의 '농부를 만나다' 강의를 들었다. 농부라는 직업이 생소했고, 주변에도 농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 들었다.

로컬푸드의 뜻도 알게 되었고, 어떤 시스템으로 생산되어 우리 밥상으로 오게 되는지도 배웠다. 조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우리 조의 장점을 생각하고 정말 서로를 칭찬하기 바꿨다. 조원 친구들에게 나의 장점을 들으니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순천주암생명숲돌봄센터 어린이들과 놀이부스와 EM비누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진행하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조심히 만들었고 생명숲돌봄센터 친구들과 재미있게 만들었다. 제일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낯가림이 심해서 다가오지 않았다.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먼저 다가가니 웃었는데 미소가 정말 예쁜 아이였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청춘불패'

날이 어둑해지고 간사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바비큐 시간이 되었다. 엄청 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



순천YWCA Y-틴 회원들이 호박넝쿨을 정리하고 있다.



마을 할머니댁 마당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년들

어야 해서 걱정이 많이 됐다. 조장 오빠가 조원들을 위해 열심히 고기를 구워줘서 정말 맛있게 밥 한 그릇을 푹딱 먹었다.

첫날 마무리 순서인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이어졌다. 빙고 게임을 하고, 과자 복불복 게임을 했는데 똑같이 생긴 여러 개 과자 안에 1개만 와사비(고추냉이)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와사비가 들어 있는 과자를 내가 먹었다. 먹지 않은 척 열심히 연기한 덕분에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농촌체험 봉사활동을 위해 이른 잠을 청했다.

눈을 감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일어나 보니 밭에 있었다. 호박넝쿨을 치우는 일이었다. 넝쿨이 무겁고 영커 있어서 연세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기엔 참 어려운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조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맞추면서 하나씩 해나갔다. 무성하게 자란 넝쿨을 치우는데 땀범

벅이 되었다. 열심히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깨끗한 밭이 모습을 드러냈다. 밭에 호박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장님이 수고했다면서 주셨다. 아침식사 때 조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일하고 먹는 밥이라 그런지 참 꿀맛이었다.

밭에서 '열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 졸렸다. 정신없이 다음 봉사활동을 하러 마을로 나갔다. 우리 조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댁을 찾아 집안일을 돕고, 다른 조는 하천청소를 하는 '찾아가는 청소요정'이 되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과일과 음료수를 주셨다. 기뻐해주시니 오히려 더 감사하고 뿌듯했다.

농촌체험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게 많다. 힘들었지만 해보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여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가장 좋았다. 올해 여름방학에 선택한 1박2일 농촌체험 봉사활동은 잊을 수 없는 순천 Y-틴 활동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YWCA 농촌활동의 역사는 길다. 1926년부터 농촌으로 직접 나가 농민들과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실정을 파악하고 농민의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위생관념과 질병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의료봉사,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반 강습과 주부교육, 농사법과 농기구 개량사업으로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했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늘면서 농촌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새로운 작물 개발, 유통 교육으로 농촌여성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Y-틴은 봉사단을 조직해 해마다 여름이면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고, 가족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촌 살리기에 앞장섰다. 아동성경학교를 열어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저녁에는 주부들에게 가정간호법을 전수했다. 2000년대 들어 농촌봉사활동은 시대변화와 함께 많이 줄었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은 점수따기식 통과의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순천 YWCA Y-틴 농촌봉사활동은 여러모로 뜻깊다.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배우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잠시나마 스마트폰과 떨어져 자연을 즐기기 위한 농촌체험 봉사활동 '청춘불패'는 올해도 계속됐다. Y-틴 42명은 7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1박2일간 순천주암 용오름마을에서 직접 밭을 치우고, 마을을 청소하면서 농민들의 농사와 집안일을 도왔다. 이번 에 참가한 김원지 Y-틴 회원의 소감을 신는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이 하루 1천원씩 1년을 모아 만든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이 2월 23일(금) 열렸다.

강하자

서귀포YWCA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1,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요즘 마트에 1천원 한 장만 들고 가면 뭘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1천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뽑으면 5명이 먹을 수가 있고, 껌 1통을 살 수 있고, 로또도 살 수 있다. 천냥마트를 가면 뭐든 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1,000원을 1년간 매일 모았다. 한 사람도 아닌 무려 7명이 모였다.

2017년 새로운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시무예배를 하고 이사님들과 실무진이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돌아가며 새해 계획을 나누는 시간에 이신선 사무총장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다. 반백 살이 되면서 하루에 1만원씩 모아 연말에 뜻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울림과 감동을 받았다.

동시에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다. 아침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라고 외우고 있는 것이 정말 앵무새의 조잘거림같이 '나의 삶

과 연관이 없었구나'를 반성했다. 나의 발전과 이익만을 위한 계획을 세운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지만 실은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 이웃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무예배와 나눔을 마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돌아와 또다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7명 직원 중 1명도 반대 없이 흔쾌히 동의했다. 단, 사무총장님처럼 큰 금액을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부담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기로 했다. 그 금액이 '하루에 천원'이었다. 1년간 매일 1천원씩 모으자고 했다. 1천원씩 모으는 것도 중요했으나 목적이 없으면 지속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모아진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답은 아주 빨리 정해졌다. 장학금이였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연말에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과 부모, 직원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교복을 사주자, 운동화를 사주자 등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장학금으로 정했다.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우리와 함께 활동한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이기에 장학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기도까지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천원과의 '전쟁'과 기적

바로 그날 청소년문화의집 직원 7명은 각자 1천원씩 내고 바로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했다. 가장 부지런한 직원이 통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천원과의 전쟁' (?)이 시작됐다. 말이 쉬워 하루에 1천원이지 1천원짜리가 없을 때도 많았다. 문화의집 업무 특성상 주말근무와 오후근무로 나뉘어 근무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어려워 날마다 천원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주 1회 직원회의 때 일주일치 7천원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교육이나 출장으로 한주를 미루면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중간쯤 가서는 좀 밀리니 부담스러워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문화의집을 드나들며 열심히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또 힘이 났다.

연말이 되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회의를 하면서 더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떠올랐다.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 중에 가정형편을 살펴 대상자를 정하고 연락했을 때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은 초등학생이라 부모님에게 연락했는데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

습에 같이 울면서 통화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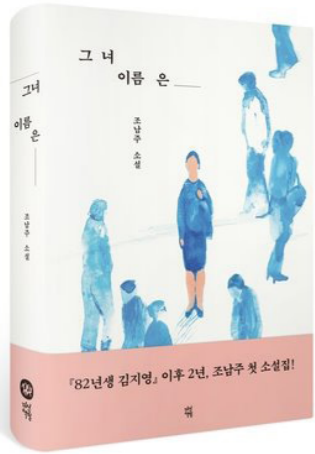
모아진 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많이 주고 싶은 마음에 대상자를 10명으로 하다 보니 각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적었지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뿌듯한 시간이었다. 참여한 부모님 중에는 1년간 아이를 잘 돌봐준 것만도 감사한데 장학금까지 주니 마음만 받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 고맙다면서 집에서 도넛을 만들어 오기도 했다. 감사가 넘치는 현상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열심히 활동한 친구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봉사활동하러 오겠다고 약속했고, 자신의 SNS에 '우여곡절 많았던 2017 청문!!! 장학금을 받았다!!! 집 가서 봤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이제 청문에 뼈를 물어야 되는 건가'라고 쓴 친구도 있었다.

'천원의 장학금'은 정말 '하루의 천원'이 일궈낸 기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적은 금액이지만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씨앗기금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함께 활동한 직원의 문자로 글을 맺는다.

"관장님~ 따뜻함을 배우고 느끼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이제 3년차가 되었는데 늘 청소년과 함께 가슴 뛰는 삶을, 또 그런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따뜻한 청문!!! 느낌 있는 청문으로!!!! 파이팅입니다♡"

참, 우리 사무총장님은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쓰셨을까. 여고 동문회와 다문화센터에 후원했다고 한다. 서귀포YWCA가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나눔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녀 이름은

조남주 / 다산책방 / 14,500원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백래시(Backlash)가 화두다. 언론이나 대중의 시선이 '불온하고 조신하지 못한' 여성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이 반동은 여성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서로 공명하거나 부딪치며 '다시 만난 세상'을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버티고 살아내는 건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식구들과 싸우거나 탈출하거나 끌어안거나, 자꾸 헛발을 딛는 통장 사정에 비틀거리거나, 비뚤어진 현실과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하거나, 삶의 허상에 홀리기도 하지만 각자의 삶이고, 각자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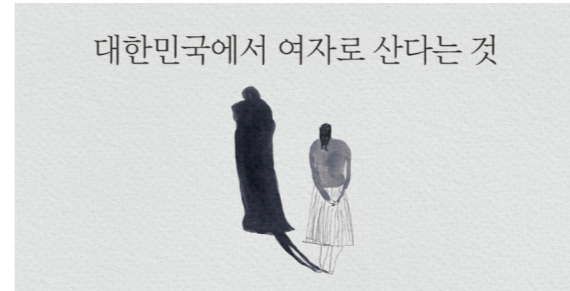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조남주가 2년 만에 신작 <그녀 이름은>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작의 변주를 에필로그까지 합쳐 28개의 짧은 버전으로 풀어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용기 있게 고발한 20대 후반의 소진부터 방송작가로 고군분투하는 나리, '원'이라는 이름의 여자 아이들에게 심쿵한 주경, 자다가 침입자 때문

그녀들의 Amor Fati <그녀 이름은>

김신애

목사·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

에 봉변당한 1인, 아홉수 은순, 엄마의 병과 죽음을 겪어내는 그녀들, 이혼하는 정은과 결혼하는 정아와 혼자 서는 엄마, 출산휴가 받느라 고생한 지선, 초보 학부모 지혜, 돈 때문에 새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민정, 노후를 준비하는 민아, 파업하는 아나운서 민주, KTX 해고 승무원 서른 한 명 중인 그녀, 8년차 급식조리사의 딸 수빈, 아직 <달인을 찾아라>에는 나가고 싶지 않은 14년 차 시내버스 기사님, 국회 청소노동자 진순, 외손주 셋을 보며 먼저 세상 떠난 진명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내, 소성리 72세 할매 성례, 비운의 99년생 유경, 파행된 학교에서 달팽이 민주주의를 배운 정연, 택시 기사에게 속아 곤경을 당한 학생 기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온 엄마에게 존경을 표하는 큰딸 은미, 자기 이름이 싫은 진숙, 11년 인생의 절반을 초등학교생으로 살아온 6학년 은서, 책임지는 어른이 되고 싶은 78년생 J씨까지 소설이기도 하고 소설이 아니기도 한 이 기록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밝혀 불러 준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간다. 누구도 내가 아닌데 나는 그 이름에 열렬히 공명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그려낸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이 <그녀 이름은>에서는 28명 여성의 이야기로 넓혀졌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우머니스트(Womanist)들이 등장한 이후 '여성'의 "여성은 어디까지 균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물음은 끊임없이 지평을 확장해 왔다. 답은 간단하다. 남자라고 다 똑같지 않은 만큼 여성들의 삶도 다 다르고, 남자들이 다 똑같은 만큼 여성들도 모두 똑같다.

한때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했던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의 이상이 지역으로 회귀하는 아나키즘을 형제 삼았듯 페미니즘 역시 여성 각자의 개별성과 교차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교차성이란 한 인간 안에 민족, 계급, 빈부, 인종, 장애 여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여러 모순이 중첩되어 있음을 성찰하는 것이다. 일베가 '전시'한 박카스 할매와 두 시간 전 마트에서 지나친 새댁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직장에서 부당해고된 노동자 여성과 '실드 시위'에서 메가폰을 잡은 젊은 일본 여성과 한류 아이돌에 열광하는 유럽 여성, 에이즈에 걸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프리카 엄마는 어떤 지평에서 만날 수 있을까?


게즈비언(게이와 친한 레즈비언 여성 또는 레즈비언과 친한 게이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은 어디까지 자신들의 차이에 주목하고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을까? 젊은 여성 목사이자 오랜 페미니스트이자 운동권인 나는 그 자체로 얼마나 요상하고 독특한 혼종인가? 분명한 것은 선명한 목소리로 자기 세계와 투쟁하는 여성들만이 손을 맞잡고 서로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시 만난 세계' 편에 나오는 정연의 다짐처럼 "나는 강하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아직도 '빼앗기고' 있는 이름

9월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교회가 앞장선 혐오 범죄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언과 욕설, 위협을 쏟아내고 합법적 집회를 방해했으나 국가가 이를 방조한 현상이었다. 군데군데 고립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며 그래도 노래하고 춤추고 함께 축제를 지켜냈다.

우리는 이날의 경험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그들은 이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만 공격한 게 아니었다. 성별에 상관없이 성폭력에 노출됐고 청소년,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했다. 우리들 사이의 차이는 모두 사라지고 차별의 이편에 몰린 균일한 집단으로 압착되었다.

소수자들의 정당한 '이름'을 빼앗는 것이 차별하는 사람들의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것이 차별의 본질일 수도 있다는 게 그 경험을 통해 명징해졌다. 이러한 차별의 문법은 혐오범죄 집단이 깃발을 빼앗는 것에 유난히 집착했던 그날의 장면과 오버랩된다. <그녀 이름은>에서처럼 '빼앗기고' 있는 여성들의 이름, 성소수자들의 이름, 청소년들의 이름, 장애인들의 이름, 이주민들의 이름을 되살리고 나아가 개개인의 차이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르겠다. 

월레아침기도회



월레아침기도회가 Y-틴위원회 주관으로 9월 6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틴위원회가 특송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를 불렀고, 김효숙 장신대 교수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9월 1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WCA 회원과 청년 회원, 탈북민으로 구성된 평화포럼단을 비롯한 연합회 자원·실무활동가 23명이 참석했다. 손성현 창천교회 목사가 '평화와 하나됨을 위한 이야기 교육의 길'을 주제로 강의와 성경을 배경으로 만든 심리극 '비블리오드라마' 워크숍을 진행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보호 법제화 국제세미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가 8월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와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한국의 사례가 발표됐다. 안수경 Y-틴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학·청년Y '청년CPR캠프'



2018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가 '청년을 숨쉬게 하다, 청년CPR캠프'라는 슬로건 아래 8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대전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열렸다. 14개 회원YWCA(거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서울, 수원, 안양, 여수, 울산, 전주, 창원, 청주) 청년회원과 일반청년 등 62명이 참가했다. 심폐소생술(CPR)에서 이름을 따온 청년CPR캠프는 청년들의 연대(Connect), 쉽고 놀이(Play), 회복(Recover)을 뜻하기도 한다. 사람책방, 소소한 운동회, 별빛음악회, 청년야방 등이 진행됐다.

대학·청년Y 실무활동가 해외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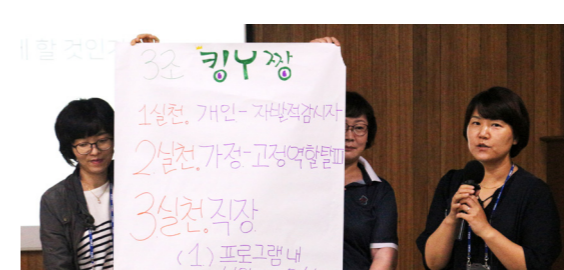
2018 회원YWCA 중견 실무활동가 해외연수가 8월 26일(일)부터 31일(금)까지 5박6일간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그린보트에서 열렸다. 대학·청년Y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는 7개 회원YWCA(대전,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전주, 청주) 실무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손지수 회장과 차민규 동부지역 대표를 비롯해 연합회에서는 유성희 사무총장, 송록희 부장, 김수진 간사가 참가했다. 100주년을 앞두고 YWCA가 양성할 글로벌 청년리더십과 청년운동의 비전을 모색했다.

지속가능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과 교육'



제3차 YWCA 지속가능포럼이 9월 6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과 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문헌규 비소나눔마을 이사의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그리고 젠더' 강의를 시작으로 조혜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이자 Y아카데미 위원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민교육과 배움', 김순영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회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 기독여성의 과제' 발제가 이어졌다. 참가자 40여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YWCA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토론했다.

1단계 실무활동가 교육



2018 제2차 YWCA 1단계 실무활동가 교육이 9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2박3일간 부천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20개 회원YWCA 본부와 부속시설, 연합회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시민사회와 YWCA' 강의를 시작으로 YWCA 목적을 이해하고 활동가로서 사명과 비전을 세우는 교육이 진행됐다.

실무정책협의회



2018 YWCA 실무정책협의회가 9월 7일(금) 서울YWCA 강당에서 회원YWCA와 연합회 활동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YWCA 지역여성운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광지역 연합회 실행위원의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 강의를 시작으로 배정미 연합회 중점운동국장이 지방선거 의제활동 결과를, 이해정 청주YWCA 사무총장이 지역여성운동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가 '한국사회 변화 물결과 여성운동의 과제'를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중점운동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18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강릉과 동해 일대에서 열렸다. 1박2일간 지역위원회별로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특강과 '성평등과 기독교성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YWCA 중점운동인 성평등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동해 무릉건강숲에서 치훈명상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기업 '바리의 꿈'을 탐방했다.

중부지역 회원대회



2018 YWCA 중부지역 회원대회가 8월 29일(수)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당당히 서는 여성, 변화를 이끈다'를 주제로 열렸다. 예배와 개회식, 플래시몹, 인형극, 합창, 가수 홍순관의 공연,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김공자 예술감독의 목사의 설교와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지역에서 왜 YWCA가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가' 강의도 펼쳐졌다. YWCA 중부지역협의회 8개 YWCA(논산, 대전, 서천, 세종, 제천, 천안, 청주, 충주)에서 420여명이 참석했다.

북부지역 회원대회



YWCA 북부지역협의회는 8월 30일(목) 강릉장로교회

TG홀에서 '지역과 여성, 희망을 잇다'는 주제로 2018 YWCA 북부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개회예배, 개회식, 결의문 낭독과 회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가 '지역여성운동과 YWCA'를 주제로 강의했다. 아카펠라그룹 MTM의 희망콘서트와 회원실천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7개 YWCA(강릉, 동해, 서울, 속초, 원주, 인천, 춘천)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동부지역 회원대회



YWCA 동부지역협의회는 9월 5일(수) 대구 호텔인터블고 엑스코에서 '도약하고 전진하는 여성들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YWCA 동부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예배, 회원Y기 입장, 개회식, 회원다짐 퍼포먼스로 진행됐으며 송실대 사이버대학교 교수인곽지영 연합회 실행위원이 '우리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를 강의했다.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15개 YWCA(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안동, 양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포항)가 각자 장기자랑을 펼쳤다.

복지기관 직원연수



2018 YWCA 복지기관 직원연수가 8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2년마다 진행되는 복지기관 직원연수는 YWCA 정체성을 확립하고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회원YWCA 부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요양시설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정체성과 소통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1922장학금 바자회



한국YWCA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YWCA 1922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8월 31일(금)부터 9월 1일(토)까지 한국YWCA회관 1층에서 열렸다. (재)바보의 나눔을 통해 의료업체 바르코상사의 여성의류 4,500점을 기증받아 판매했다. 이틀간 거둔 580만원의 수익금은 장학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글로벌이슈 포럼 '난민이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2차 YWCA 글로벌이슈 포럼이 9월 11일(화) '난민이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

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가 '혐오와 배척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주에서 예멘 난민을 위한 '사마리안 행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박준범 엠브릿지 대표가 '예멘 난민과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각각 발표했다. 7월 1차에 이어 난민을 주제로 다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땅을 찾아온 나그네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인 신명기 10장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의 책임을 생각했다.

세계YWCA 이사회



세계YWCA 이사회가 7월 10일(화)부터 12(목)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는 '젠더평등 사회를 위해 젊은 여성이 변혁시키는 권력구조'(Young Women Transform Power Structures for Gender Equality)를 주제로 2019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YWCA 세계대회 준비와 세계YWCA 헌장개정을 논의했다. 말라야 하퍼 세계YWCA 사무총장은 YWCA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비전수립 2035' 실천을 위한 인력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보고했다. 한국 대표로 세계YWCA 부회장인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이 참석했다.

지정기부

김영자 연합회 Y-틴위원회 위원 Y-틴(키다리) 글로벌리더십 기금 후원
1억 5천만원 약정(3년간 매년 5천만원)

인사

복직 박효정 간사(복지사업단) 2018.8.1
퇴직 김선형 간사(법인사무국) 2018.7.31. 황정아 간사(복지사업단) 2018.8.31
채용 임가현 간사(법인사무국) 2018.8.13
신임 사무총장 마산YWCA 이애라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Y-틴, 대학·청년Y

우리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8.1~8.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인희,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장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해연,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805,000
개인 기부	오경선, 이진용, 임국미	67,07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성교회	380,000
기관,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명성약국, 레오니다스, 르빵(명동성당점), 에세레젤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127,840
합계		2,379,91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8.1~8.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회원YWCA부속시설	진주YWCA	500,000
개인	박효순, 배장빈, 안혜경, 양영심, 오민정, 오종명, 유순덕, 홍승혜 ※ 2017년 약정자 중 2018년도 8월분 안납자 곽경희	280,000
합계		780,000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간다! 심너머 연대



고양YWCA, 고양과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활동가 5명은 8월 30(목)부터 9월 7일(금) 까지 한국여성재단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으로 독일과 체코를 다녀왔다. 활동가들은 '젠더 관점으로 역사보기'를 주제로 세계 최초 여성박물관인 독일 본여성박물관, 독일 여성운동 역사를 기록한 여성사박물관, 민중예술의 어머니로 불리는 케테 콜비츠 작가의 박물관 등을 탐방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여성단체와 여성시의원 정책간담회



광명YWCA와 광명여성의전화는 8월 30일(목) 광명시의회에서 여성시의원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광명시 여성정책 제언과 함께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의회는 12명 중 5명(42%)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디딤돌학교 수료생 의회방청



남양주YWCA '생활정치 디딤돌학교' 수료생들은 9월 5일(수) 남양주시의회를 방청했다. 제254회 임시회를 지켜보며 수료생들은 의정운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여성의 생활정치 참여를 높이고자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마련된 디딤돌학교 3기는 5월 24일(목)부터 7월 26일(목)까지 성인지 관점의 여성주의, 여성 리더십, 주민참여 정책예산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잘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JOB



부천YWCA는 9월 6일(목)부터 10월 11일(목)까지 매주 2시간씩 부천실업고등학교 3학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컬러 자가진단과 이미지 메이킹, 면접기법과 모의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베트남 다문화가정 외가방문

성남YWCA는 8월 18일(토)부터 7박9일간 베트남에서 진행된 제12회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수도



권·강원지역담당 권역단체로 참여했다. 35가정의 아동들이 하노이와 호치민의 외가를 방문해 문화, 언어가 다른 가족과 교제하며 추억을 쌓고 건전한 다문화 정체성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A+ 물환경 통합프로그램



수원YWCA는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 5월부터 대상별 'A+ 물환경 통합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과 체험활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8월까지 환경교육 9회과 캠페인 1회를 했으며 유아, 청소년, 성인, 결혼이민자 등 770명이 참여했다.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환경보전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계속된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워크숍

안산YWCA는 9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안산시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권문영 '젠더로 다시 여는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



해를 주제로 강의한 뒤 성인지 예산서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와 함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실습했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안양YWCA는 8월 22일(수) 안양시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을 안양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단지에서 열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친환경에너지 체험부스, 에너지절약 캠페인, 별빛콘서트, 밤9시 소동행사 등으로 꾸며졌으며 1,000여명이 참여했다. 자전거 발전기로 슬로건을 점등한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전력소비 최고치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되었다.

의정부YWCA

박성희 간사

에너지지킴이 '에너지이저'

의정부YWCA는 8월 2일(목) 방학을 맞은 민락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퀴즈로 풀어보는 에너지 바로알기, 에너지 사용으로 생긴 환경문제 해결방법 생각해보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방법 알아보기, 버려지는 홍보전단지 종이접기 공 만들어 멀리 날리기 등을 해보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웠다.

파주YWCA

전혜은 간사

장애인 민주시민대학



파주YWCA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후원으로 8월 24일(금)부터 10월 26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장애인 민주시민대학을 진행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민주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과 의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기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총 10강의(30시간)를 이수하면 민주시민대학 기본과정 수료증을 수여한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실버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직쇼

거제YWCA는 9월 7일(금) 고현동 정다운어린이집과 덕포동 키즈트리히망어린이집에서 실버매직쇼 마술공연을 펼쳤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마술공연단은 손자손녀 같은 아이들 앞에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



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7년 노인사회활동 사업으로 시작한 실버매직쇼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1주일에 3회씩 공연하고 있다. 올해는 60개 어린이집에서 마술공연을 펼친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해반천 환경개선 활동



김해YWCA는 7월부터 10월까지 해반천 상류층에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친다. 2018 푸른김해21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마다 Y-틴을 비롯한 회원들이 김해 도심하천인 해반천에 EM 활성액을 투입한다.

대구YWCA

전명진 센터장

꿈드림! 검정고시 합격!



대구YWCA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4월 상반기 검정고시 38명 합격(과목합격 12명 포

회원YWCA 소식

함)에 이어 8월 8일 치러진 제2회 검정고시에서 57명이 합격(과목합격 10명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9~24세 학교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꿈드림은 검정고시 준비지원, 자립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제공 등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적 입을 돕는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주니어 에코리더



마산YWCA는 9월 1일(토) 함안군 칠북과수마을에서 주니어 에코리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가족 생태탐사단'을 진행했다. 청포도 따기 체험을 통해 친환경 토양과 관리, 건강한 먹거리 재배를 위한 필수요소, YWCA가 펼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운동을 배웠다. 에코리더는 환경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이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직원연수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



부산YWCA는 7월 26(목)부터 27일(금)까지 1박2일간 산청군 황매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체 직원연수를 진행

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이란 주제로 열린 2018 직원연수는 예배, 특강, 영성훈련, 영화 '어폴로지' 감상을 통한 평화감수성 키우기, 한여름밤의 콘서트, 찾아가는 생협교육, 하동 재첩 생산지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원들이 '함께' 가치를 생각하고, 서로를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환경꿈나무 EM스쿨



사천YWCA는 8월 10일(금)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꿈나무 EM스쿨을 진행했다.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환경교육과 EM 발효액 만들기 체험학습으로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배웠다. 어린이 환경교육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친환경 생활습관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양성평등 공감콘서트



양산YWCA는 9월 1일(토) 물금 위터파크공원에서 양성평등 공감콘서트를 열었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악, 밸리댄스, 금관5중주, 남성4중창 등의 공연이 펼쳐졌고 양성평등 비전선포를 했다. 양성평등 소망 나무달기 캠페인, 여성·중장년층 취업박람회, 취업상담과 색채심리상담, 드론·3D코딩·EM친환경 체험, 아나바다 등

부대행사도 운영되었다.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청소년 제주평화기행



2018 청소년 제주평화기행이 8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열렸다. '평화가 깃들인 그곳, 제주에서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피스메이커 1기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와 4·3항쟁의 역사를 배우는 4·3길을 걷고,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견학하며 제주미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진해YWCA

김자영 간사

녹색환경지킴이 환경기자단



진해YWCA 녹색환경지킴이 환경기자단은 8월 18일(토) 석동 재활용센터에서 EM 흙공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환경기자단은 하천수질을 정화하고 퇴적 오니층을 분해하는데 도움 주는 EM 흙공을 직접 만들어 신이천에 던졌다. 6월 구성된 환경기자단은 환경교육을 받고 7월부터 매달 한 번씩 환경캠페인과 EM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활동은 11월까지 계속된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제2기 여성정치학교



창원YWCA는 8월 16일(목)부터 21일(화)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제2기 정치학교를 개설했다. 회원 등 시민 20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의 방향, 풀뿌리 생활정치를 위한 여성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벌였다. 초선 시의원, 도의원도 참석했다. 8월 20일(화)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민 정치의식 조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통영YWCA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중·고등학생 30여명에게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심각성,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와 예방 등을 강의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표어 만들기 및 포스터 그리기, UCC 만들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일회용 비닐 줄이기 운동

포항YWCA는 포항시와 함께 7월 31일(화) 죽도시장에서 '당신의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는 주제로 환경캠페



인을 펼쳤다. 일회용 비닐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재활용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도 벌였다.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것을 권유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3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강릉YWCA는 9월 13일(목) 회관 비전홀에서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었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역대 임원, 김한근 강릉시장, 이재안 강릉시의회 부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여성권의 신장과 지역사회 봉사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강릉YWCA의 노고를 격려하고 30년 이후의 새로운 발전 의지를 다졌다.

동해YWCA 허순희 간사

여성인권아카데미 '여성주의&movie talk'



동해YWCA는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9월 7일(금), 12일(수), 21일(금) 3일간 여성인권아카데미를 진행했다. 9회째를 맞은 여성인권아카데미 올해 주제는 '여성주의&movie talk'로 영화를 보고, 영화 속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들의 캐릭터를 통해 젠더, 미혼모, 미투(Me Too)에 대해 토론하며 우리 시대 여성의 올바른 역할을 모색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메리케이와 '핑크아웃' 협약식



서울YWCA는 메리케이코리아와 8월 28일(화) 회관에서 소외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핑크아웃'(Pink Out) 협약식을 진행했다. '핑크아웃'은 각종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에게 내적 치유와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자는 활동이다. 메리케이는 올해 초 사회공헌 톱스틱 '과외풀 핑크'를 한정출시하고 판매수익금 일부를 핑크아웃을 위해 서울YWCA에 후원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업무협약



속초YWCA는 8월 17일(금) 속초시의회,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 속초시 보건소, 천사요양복지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기쁜어린이집, 경동대학교, 한살림 등 8개 기관·단체와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협약을 맺었다.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은 시민들의 건강한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일상에서 접하는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Y-틴, 대학·청년Y 연합체육대회



인천YWCA는 8월 25일(토) 인천내리감리교회 비전센터에서 Y-틴과 대학·청년Y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연합체육대회를 열었다. 90여명이 참석해 '하계올림픽'이라는 주제로 가상국가를 세워 국가별 체육경기 대항전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만큼 응원 열기와 함성도 가득 차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가 되었다. 9월에는 사랑의 반찬 나눔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아기돌보미 교실



춘천YWCA는 8월 14일(화)부터 31일(금)까지 아기돌보미로 활동을 원하거나 손자 돌봄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기돌보미 교실을 열었다. 영유아 발달특성과 이해, 놀이지도, 건강과 영양관리, 생활지도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9명이 수료했다. 취업을 원하는 수료생은 취업상담을 통해 춘천YWCA 아기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가사돌봄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광양YWCA는 8월 31일(금) MG새마을금고 3층에서 15명의 가사돌봄 활동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인 박혜정 광양YWCA 이사가 다양한 돌봄 활동가 현장교육 사례를 통해 가사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사돌봄 활동가들의 인권의식과 전문성 강화, 돌봄운동의 전망 등을 내용으로 강의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직원연수



광주YWCA는 8월 25일(토) 지리산에서 전체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노고단까지 오르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본부와 부속시설 직원 80여명은 YWCA 실무자로서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인하고 화합을 다졌다.

남원YWCA 장신화 간사

'청소년어울림마당' 통일 캠페인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화) 어현동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 제3회 남원시 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통일 캠페인을



펼쳤다. 다양한 공연, 체험, 캠페인이 선보인 이날 행사에서 남원YWCA 청소년 회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이룬 평화의 그날이 오면’을 주제로 북한의 언어, 음식, 통일로 이행을 지으면서 북한을 이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순천YWCA 이귀선 부장

여성시의원 초청간담회



순천YWCA는 8월 20일(월) 순천시의회 여성의원 5명을 초청해 간담회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열었다. YWCA 이사, 시설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시의원들과 지역 여성현안, 여성 지도자로서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여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여성지도력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치매극복 선도단체 현판식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받은 여수YWCA는 8월 29일(수) 지정서 전달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여수시는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주체를 동참시키고자 지난 5월 한려동을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하고, 7월에는 지역사회 의 올바른 치매 이해와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YWCA 이사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YWCA는 치매인식 개선활동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치매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익산YWCA 홍진 간사

키다리학교 '라온' 청소년포럼대회



익산YWCA가 토요일안학교로 운영하는 키다리학교 '라온'은 YWCA 강당에서 제2회 청소년포럼대회를 열었다. 토론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인터넷 악플'을 주제를 다뤘으며 참석자들은 악플에 대한 생각과 경험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모방범죄나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플은 어떤 의도로 썼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50주년 기념강좌 '평화이야기'



전주YWCA는 9월 11일(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두 번째 시민강좌로 '평화이야기'를 열었다. 7월 4일 첫 번째 시민강좌 '함께 행복한 성

평화'에 이은 이번 강좌에서는 사회학자 정수복 박사를 초청해 '평화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전주YWCA의 정체성을 다시 되짚어보는 장이 되었다.

서귀포YWCA 김수진 팀장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5강좌



서귀포YWCA는 8월 29일(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시 지역운영 5강좌를 열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가 남북정세와 한반도 통일담론을,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교수가 제주지역 통일문화 콘텐츠를 강의했다. 고성준 교수는 "제주가 통일을 시작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첫 단추가 되면 좋겠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제주가 갖고 있는 통일 콘텐츠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숲속의 작은 모험' 탐험활동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8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1박2일간 제주교래생태체험장,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절물자연휴양림에서 자기도전포상제 탐험활동으로 '숲속의 작은 모험'을 진행했다. 자기도전포상제는 9~13세 청소년들이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뤄가며 숨겨진 기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성장프로그램이다. 제주신라면세점이 지원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재난안전, 보고 또 보고!



논산YWCA는 재난안전플래너 양성교육 과정으로 8월 23일(목)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 견학을 진행했다. 재난안전 모니터링 활동가들은 자연재난과 안전에 대한 기초상식, 교통·선박·화재 등 생활 속 재난 대비방법을 배웠다. 강도별 실내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압전과 붕괴 시 탈출체험은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재난안전플래너 양성교육은 5~6월 강의와 7~8월 모니터링을 거쳐 9월 견학으로 마무리된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생활 속 '독성탈출' 환경교육



대전YWCA는 8월 30일(목)부터 9월 21일(목)까지 4회에 걸쳐 독성탈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20여명의 수강생들은 다양한 환경 속 독성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다. 피부, 호흡기, 음식 등을 통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독성물질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을 알고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생활용품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도 가졌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소비자상담원·모니터요원 연수



세종YWCA는 8월 31일(금) 교육장에서 소비자상담원 및 모니터요원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모니터요원의 자세와 역할, 구도심에 밀집된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링을 신도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활동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물가 조사 모니터링은 추석 명절에 2회 더 실시하기로 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초록환경교실



제천YWCA는 8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초등학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초록환경교실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교육을 시작으로 EM 발효액과 EM 천연비누 만들기, 재활용을 이용한 디퓨저, 다육화분 만들기를 했다. 마지막 날은 제천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장, 청주기후변화체험관을 견학했다. 초록환경교실은 매년 여름방학마다 열리고 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여성안전모니터단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주YWCA 여성안전모니터단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가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쳐 여성안전 기본교육을 받은 모니터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성별, 세대별 설문조사와 여성친화사업 안전부문의 행정 정책중심 심층면접(FGI) 조사, 여성안전인식 거리캠페인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초등생 씽크머니 금융교실



충주YWCA는 8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충주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4~6학년 초등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기 씽크머니 금융교실을 진행했다. 모두 10회로 구성된 이번 씽크머니는 마지막 수업에서 돈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용돈 탐험대' 보드게임을 크게 만들어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제3기 씽크머니 금융교실은 9월 15일(토)부터 시작해 11월 24일(토)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공통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18.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10만병상으로 확대 ※3월말기준 412개병원, 27,707병상운영	~'22년까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 2~3인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적용 ※병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단계적 적용 - 1인실: 중증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18.7.- '19년 하반기
노인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18.4.-
노인	치매진단 MRI, 신경인지 등 -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적용	'18.1.-
노인	임플란트·틀니 -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30% 인하 ※틀니 '17.11월 가격용	'18.7.-
아동	입원진료비 인하 -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 10%로 인하	'17.10.-
여성	난임시술 -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 적용 ※만44세이하,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 ※부인과 초음파 4대중증 → 모든여성으로 확대	'17.10.-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 인하	'18.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모든 질환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18.1.-